

# 『靈樞·淫邪發夢』에 대한 研究

任世泰·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A Research on the *EumSaBalMong*(淫邪發夢) of the *Young Chu*(靈樞)

This part explains every dreams generated by pathogenic factors which attack internal organs according to environment impact, the functions, the properties and the insufficiency or excessiveness of the internal organs. Also, on the basis of it, this part deals with distinguishing ups and downs, insufficiency and excessiveness of the internal organs and method of acupuncture. For example, if internal organs are at excessive condition, reducing therapy will be used and if internal organs are at deficient condition, reinforcing therapy will be used. So, this part is named *EumSaBalMong*.

This part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The first chapter explains the mechanism of Dream which is generated by internal organs attacked by pathogenic factors. The second chapter explains Dream-phenomenon of the five viscera excessiveness, starvation and satiation, excessiveness of the Yin, Yang, the upper and lower sides. The third chapter explains Dream-phenomenon when vital energy on perverted attacks the five viscera, the six viscera, genital organs, the neck, the thigh, the uterus. So this part is important in psycho-pathology.

Key Words : *EumSaBalMong*(淫邪發夢), mechanism of dream(꿈의 기전), dream-phenomenon(發夢現狀)

## I. 緒 論

꿈에 관한 연구는 동서양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서양에서는 정신분석학적인 면에 국한된다. 정신

·접수 : 2000년 1월 26일    채택 : 2000년 2월 5일  
·교신저자 : 신영일, 전남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한  
  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061-330-3511, 010101@korea.com)

분석학의 대표적인 프로이트는 그의 『꿈의 해석』에서 꿈은 '소망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의식 속에 억눌리고 잠재되어 있던 의식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 꿈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제자 칼 융은 꿈을 대단히 중요시하였는데, 꿈을 무의식으로 통하는 길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그것을 통해 조정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보았고, 정신의학적인 치료수단으로 이용하였다.

黃帝內經에는 꿈에 대하여 몇 篇에서 論하고 있는

데, 『素問方盛衰論』에는 “氣가 虛하여 厥證이 발생하면 꿈을 많이 꾸는다. … 肺氣가 虛하면 꿈에 흰색의 물건이 보이거나 사람이 피살되어 유혈이 낭자한 꿈을, 金氣가 왕성할 때는 전쟁하는 꿈을, 腎氣가 虛하면 배나 사람이 물에 빠지는 꿈을, 水氣가 왕성하면 물속에 잠수하여 마치 두려운 일을 만난 것같은 꿈을, 肝氣가 虛하면 초목이 자라는 꿈을, 木氣가 왕성하면 나무 아래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는 꿈을, 心氣가 虛하면 불이나 천둥 번개가 나타나는 꿈을, 火氣가 왕성하면 큰 불길이나 타오르는 꿈을, 脾氣가 虛하면 음식이 부족한 꿈을, 土氣가 왕성하면 담을 쌓고 집을 짓는 꿈을 꾸는데, 이는 모두 五臟의 氣가 虛하기 때문이다.”<sup>1)</sup>고 하여 五臟의 虛實에 따른 꿈의 형태를 논하였고, 『素問脈要精微論』에는 “陰氣가 盛하면 큰물을 건너므로 인해 두려워하는 꿈을, 陽氣가 盛하면 큰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을, 陰陽이 모두 盛하면 서로 죽이거나 손상시키는 꿈을, 上部가 盛하면 날아오르는 꿈을, 下部가 盛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심하게 굶주리면 음식을 취하려는 꿈을, 심하게 배부르면 음식을 나눠주는 꿈을, 肝氣가 盛하면 怒하는 꿈을, 肺氣가 盛하면 소리내어 우는 꿈을, 短蟲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꿈을, 長蟲이 많으면 서로 싸우는 꿈을 꾸다.”<sup>2)</sup>고 하여 陰陽의 多少와 上下의 盛衰와 기생충이 많을 때 나타나는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本篇에 미치지 못한다.

本篇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臟腑의 機能·屬性·虛實 상태에 따라 邪氣가 內臟을 침습하여 발생하는 각종 꿈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臟腑氣의 盛衰·虛實을 辨別하고, 藏氣가 盛하면 瀉法을 臟氣가 虛하면 補法을 사용하여 해당 經絡을 刺鍼하는 방법 등을 논하고 있으므로 淫邪發夢이라고 하였다.

本篇의 내용은 『太素』卷十四 「四時脈診」과 『脈經』과 『醫說』卷五에 일부의 내용이 산재되어 있고, 『甲乙經』卷六 第八 「正邪襲內生夢大論」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 第四와 『類經』卷十八 疾病類 第八十五 「夢寐」와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와 『醫統』卷七十 「諸夢敘論」

에 全篇이 실려있다.

本篇의 내용은 2章으로 나누어지는데, 第一章에는 正邪가 藏部로 침입하여 꿈을 꾸는 機轉을, 第二章에는 陰氣·陽氣·上下의 亢盛, 飢飽, 五臟氣盛의 發夢現狀과 厥氣가 五臟·六腑·陰器·項·頸·股·肱·胞·髓에 침습하였을 때 나타나는 發夢現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精神科學 面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文章이 짧고, 古文으로 되어 있어 理解하기가 어렵고 版本마다 글자가 다르며, 全面的인 各 註釋家의 比較 研究가 없을 뿐만 아니라 註釋도 한결같지 않아 본래의 뜻을 理解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版本의 誤謬를 바로잡고 正確한 註釋을 가려내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하므로써 原文을 보다 正確하게 理解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研究에 착수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 1. 研究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二章으로 나누고, 正文과 註釋의 原文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結語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倣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類經』, 『靈樞經校釋』 및 『黃帝內經章句索引』을 參考하여 그 內容을 二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現대화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하여 比較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辭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研究資料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아 '○'로 구분하였고,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腳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21.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58.

사. 直譯은 正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 의 章節에 『00』等이며, 脚註는 '1), 2), 3), 4)……'의  
 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衍하여 解釋하였다.

## 2. 研究 資料

〈表.一〉 校勘 書名 및 略稱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 號	書 名	略 稱	
1	明繡谷書林周日校重刊本	周本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과 靈樞經校釋에서 인용
2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叢書本	統本	
3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4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5	日本田中清左衛門本	日刻本	
6	黃帝內經太素	太素	
7	黃帝內經素問	素問	
8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9	備急千金要方	千金	
10	脈經	脈經	
11	諸病源候論	病源	
12	靈樞略	靈樞略	
13	太平御覽	太平	
14	醫說	醫說	
15	列子	列子	
16	古今醫統大全	醫統	
17	類經	類經	
18	華佗中藏經	中藏經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

番 號	註 釋 家	時 代	書 目	略 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4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5	汪詒庵	清	素問靈樞類纂約註	汪
6	黃元御	1756年	靈樞懸解	黃
7	丹波元簡	1808年	靈樞識	丹波
8	章楠	1825年	靈素節注類編	章
9	楊維傑	1976年	黃帝內經靈樞譯解	傑
10	郭靄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郭
11	河北醫學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12	李今庸	1988年	新編黃帝內經綱目	庸

### III. 本 論

#### 第一章. 꿈의 發生 機轉

##### 【原文】

黃帝 曰願聞淫邪<sup>(1)</sup>泮衍<sup>(2)</sup>은 奈何오 岐伯이 曰正邪<sup>(3)</sup>從外襲內<sup>(2)</sup>而未有定舍<sup>(4)</sup>하고 反淫于藏<sup>(4)</sup> 하야 不得定處<sup>(4)</sup>하고 與營衛俱行<sup>(5)</sup> 而與魂魄飛揚<sup>(6)</sup> 하면 使人臥不得安<sup>(7)</sup>而喜夢<sup>(8)</sup>하니 氣淫于府<sup>(9)</sup> 則有餘于外<sup>(9)</sup>하고 不足于內<sup>(9)</sup>하야 氣淫于藏 則有餘于內<sup>(10)</sup>하고 不足于外<sup>(10)</sup>이다

##### 【校 勘】

- 1) 願聞淫邪泮衍: 『甲乙』卷六 第八에는 '淫邪泮衍'으로 되어 있다.
- 2) 正邪從外襲內: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邪從外集內'로 되어 있고, 『太平』卷三十九 「人事部 敘夢類」에는 '正邪外襲內'로 되어 있다.
- 3) 而未有定舍: 『甲乙』卷六 第八과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모두 '未有定舍'로 되어 있다.
- 4) 反淫于藏: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와 『靈樞略』에는 모두 '及淫于藏'으로 되어 있다.
- 5) 與營衛俱行: 『太平』卷三十九 「人事部 敘夢類」에는 이 다섯 글자가 없다.
- 6) 而與魂魄飛揚: 『靈樞略』에는 '而魂魄飛揚'으로 되어 있다.
- 7) 臥不得安: 『靈樞略』에는 '臥不安'으로 되어 있다.
- 8) 氣淫于府: 『甲乙』卷六 第八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모두 '凡氣淫于府'로 되어 있다.
- 9) 則有餘于外: 『甲乙』卷六 第八에는 '則夢有餘于外'로 되어 있다.
- 10) 則有餘于內: 『甲乙』卷六 第八에는 '則夢有餘于內'로 되어 있다.

內'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淫邪(음사):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全身으로 확산되는 邪氣를 말함.
- (2) 泮衍(반연): 녹아 넘쳐 흐르는 것. ※泮 녹을 반, 衍 넘칠 연.
- (3) 正邪(정사): 陰陽勞逸로 인한 外感과 聲色嗜欲으로 인한 內傷가운데 身心을 침범하는 것
- (4) 舍: 居處, 거처 사.
- (5) 飛揚(비양):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날아 오르는 것.

##### 【較 註】

〔1〕 願聞淫邪泮衍 奈何 正邪從外襲內 而未有定舍 反淫于藏 不得定處 與營衛俱行 而與魂魄飛揚 使人臥不得安而喜夢

楊은 "무릇 꿈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이 있을 때 먼저 꿈에 나타나는 것을 徵夢이라 하고, 생각을 골몰이하여 이로 인해 꿈에 나타나는 것을 想夢이라 하고, 병이 있어서 꿈에 나타나는 것을 病夢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馬張章黃은 "泮衍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넘쳐흐르는 것이다. 正邪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風寒이지 虛邪賊風 같은 사나운 것이 아니니 感受하더라도 심하게 느끼지 못한다. 그 邪氣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침습하더라도 정해진 거처가 없어 營衛之氣와 더불어 섞여 흐르게 된다. 衛氣는 낮에는 陽으로 運行하고 밤에는 陰으로 運行하므로 邪氣가 뒤섞여 혼란스러워지면 魂魄과 더불어 飛揚하므로 사람이 잠을 잘 수 없고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였고,

- 3) 楊: 凡夢有三種하니 人有吉凶에 先見於夢을 此爲徵夢也요 思想情深하야 因之見夢을 此爲想夢也요 因其所病하야 見之於夢을 此爲病夢也라
- 4) ○馬: 淫邪者는 非別有其邪니 卽後篇의 燥濕寒暑風雨之正邪가 從外襲內而未有定舍하고 及淫於臟腑하니 卽前篇之大氣入臟也라 與營爲陰氣衛爲陽氣者로 俱行하고 而與魂魄飛揚하야 使人臥不得安而多發爲夢이라 ○張: 此는 承上章하야 論淫邪泮衍에 而有虛邪正邪之別也라 虛邪者는 虛鄉不正之淫邪니 中人多死하고 正邪

黃은 “本氣가 盛하면 능히 꿈을 꿀 수 있고, 本氣가 虛하면 厥氣가 침습하여 이로 인해 꿈을 꾸니 모두 外邪가 안으로 침습하여 발생하는 것이다.”<sup>5)</sup>”라고 하였고,

景岳傑校釋庸은 “淫邪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은 奇邪로 인한 꿈이 變化가 無窮하다는 것을 말한다. 正邪는 正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무릇 陰陽勞逸로 인한 外感과 聲色嗜欲으로 인한 內傷가운데 다만 身心을 침범하는 것을 모두 正邪라고 하니 또한 밖으로부터 안으로 침습한 것이다. 오직 그 변화 형태가 恍惚하고 정해진 위치가 없는 까닭에 안으로 臟을 침범하면 營衛와 魂魄을 혼란시키므로 사람이 正邪의 침습에 따라 꿈을 꾸게 된다.”<sup>6)</sup>”라고 하였다.

者是 風雨寒暑니 天地正氣也라 夫虛邪之中人也是 灑漸動形하고 正邪之中人也是 微先見於色하고 不知於身하야 若有若無하며 若亡若存하야 有形無形하야 莫知其情이라 是以로 上章之淫邪泮衍은 血脈傳溜하야 大氣入臟이던 不可以致生者니 虛邪之中人也요 此章은 論正邪從外襲內하야 若有若無而未有定舍하야 與營衛로 俱行於外內肌腠膜原之間에 反淫於臟이나 不得定處而與魂魄飛揚하야 使人臥不得安而喜夢이라 夫邪之折毛發理하야 邪從皮毛入而發於腠理之間이라 腠理者는 在外膚肉之紋理와 在內臟腑膜原之肉理니 衛氣所遊行出入之理路也라 是以로 淫邪泮衍하야 與營衛俱行하야 行於膜原之肉理 則反淫於臟矣라 夫心藏神하고 腎藏精하고 肝藏魂하고 肺藏魄하고 脾藏意니 隨神往來를 謂之魂이요 并精而出入을 謂之魂이라 志意者는 所以御精神하야 收魂魄者也니 魂魄飛揚而喜夢者는 與五臟之神氣飛揚也라 ●章: 泮衍者는 滿溢延綿也라 正邪는 謂尋常風寒이요 而非虛邪賊風之猛厲者니 故로 受之而不覺也라 其邪從外襲內로대 未有定舍定處하야 與營衛之氣混淆하니 衛氣는 晝行於陽하고 夜行於陰하니 邪氣混亂而與魂魄飛揚하야 使人臥不得安而發夢이라

- 5) 黃: 本氣盛 則自能爲夢이요 本氣虛 則厥氣客之하야 以後爲夢이니 總由外邪之內襲也라
- 6) ●景岳: 淫邪泮衍은 言奇邪爲夢이 變幻無窮也라 正邪者는 非正風之謂니 凡陰陽勞逸之感於外와 聲色嗜欲之動於內가 但有干於身心者를 皆謂之正邪니 亦無非從外襲內者也라 惟其變態恍惚하고 未有定舍 故로 內淫於藏 則於營衛魂魄에 無所不亂하야 因令人隨所感而爲夢이라 ○傑: 正邪는 是指有害於心身の各種內外刺激而言이라 此種刺激은 因與風寒暑濕等六淫之邪의 性質有所不同 故로 稱爲正邪라 ○校釋: 泮衍은 沈淫擴散之意라 正邪는 指能够刺激和干擾身心正常活動의 各種因素니 如情志活動과 飢飽勞逸等이라 ○庸: 淫은 惑亂이니 淫邪는 指惑亂神志의 邪氣라 泮은 溶解離散이요 衍은 流布滿溢이니 泮衍은 就是蔓延擴散의 意思라 正邪는 相對於虛邪而言이니 對人體의 損害較小라 未有定舍 反淫於藏은 言正邪는 在表裏出入活動하고 沒有固

[2] 氣淫于府 則有餘于外 不足于內 氣淫于藏 則有餘于內 不足于外

馬景岳張章庸郭은 “邪氣가 있는 곳이 有餘가 되고 邪氣가 없는 곳이 不足이 되며, 臟은 陰이니 內가 되고 腑는 陽이니 外가 되므로 邪氣가 陰陽에 있으면 陰陽이 亢盛하여 調和를 지 못하므로 心身도 또한 반드시 편안하지 못한다. 대개 神은 形體가 없고 氣는 形體가 있나니 神은 氣의 體이고 氣는 神의 用이므로 氣가 調和로우면 神은 安定하고 神이 擾動하면 氣가 混亂하게 된다. 그러므로 邪氣가 氣를 擾亂하면 神이 變幻하여 꿈을 꾸게 되고 情欲이 神을 擾動하면 氣가 耗傷하여 病이 발생하니 이는 神과 氣가 본래 一物이나 體와 用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라고 하였다.

##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正邪從外襲內’가 『病源』에는 ‘邪從外集內’로 되어 있고, 『太平』에는 ‘正邪外襲內’로 되어 있는데, ‘邪從外集內’의 의미를 ‘邪氣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모인다’라고

定的居處로대 反而內干于臟腑하야 而與魂魄飛揚하야 使人臥不得安而喜夢이라 魂魄은 代表五臟所舍之神이요 飛揚은 往來流動游蕩이요 臥는 睡也요 喜夢은 容易做夢이라

- 7) 馬: 此邪淫之于腑면 則腑主外하니 其外爲有餘 而內則不足하고 此邪淫之于臟이던 則臟主內하니 其內當有餘 而外則不足이라 ○景岳: 氣淫于腑는 氣盛於陽也요 氣淫于臟은 氣盛於陰也라 ○張: 腑爲陽而主外하고 臟爲陰而主內하니 邪氣가 與營衛俱行於臟腑膜原之間 故로 氣淫於臟 則有餘於內하고 不足於外하야 氣淫於腑 則有餘於外하고 不足於內라 ●章: 以邪淫之處爲有餘요 無邪淫之處爲不足이며 臟爲陰爲內요 腑爲陽爲外니 邪或在陰在陽 則使陰陽偏亢不和하며 而心身亦必不寧이라 蓋神無形而氣有形하니 神者는 氣之體요 氣者는 神之用이라 故로 氣和 則神定而安하고 神動 則氣亂不順이니 是以로 邪擾其氣 則神變幻而成夢하고 情欲動 神 則氣耗傷而致病하니 以神氣本爲一物 而分體用者也라 ○庸: 腑爲陽而主外하니 邪氣淫亂于腑 則陽氣偏勝 故로 夢見有餘于外而不足于內니 卽外爲實象하고 內爲虛景이라 臟爲陰而主內하니 邪氣淫亂于臟 則陰氣偏勝 故로 夢見有餘于內而不足于外니 卽內爲實象하고 外爲虛景이라 ○郭: 氣淫于腑는 氣盛于陽이요 氣淫于臟은 氣盛于陰이라 爾雅 釋詁에 淫은 大也라하니 大엔 有盛義라

볼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문의 것이 옳다.

‘反淫于藏’이 『千金』과 『靈樞略』에는 모두 ‘及淫于藏’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위의 ‘未有定舍’句와 연결하여 볼 때 ‘及’은 ‘反’의 오식으로 보아야 한다.

‘則有餘于外’와 ‘則有餘于內’가 『甲乙』에는 ‘則夢有餘于外’와 ‘則夢有餘于內’로 되어 있는데, 正邪가 腑와 臟으로 淫溢한 결과이므로 주체가 夢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원문의 것이 옳다.

#### 【較註에 對한 考察】

‘正邪’에 대하여 馬張黃章은 그 세력이 사나운 虛邪賊風이 아니라 天地의 正氣인 風雨寒暑라고 보았고, 景岳 傑校釋庸은 正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陰陽勞逸로 인한 外感和 聲色嗜欲으로 인한 內傷가운데 다만 身心을 침범하는 것을 모두 正邪라고 보았는데, 景岳등의 주장이 옳다.

꿈의 발생 기전에 대하여 楊은 그 형태에 따라 徵夢, 想夢, 病夢으로 나누어 보았고, 黃은 ‘本氣의 盛虛에 따라 모두 꿈을 꾀다.’라고 하였으며, 이외의 諸家는 모두 ‘正邪가 침습하면 營衛氣가 영향을 받아 魂魄이 날아오르므로 꿈을 꾀다.’고 하였다.

#### 【直譯】

黃帝께서 물으셨다. “淫邪가 널리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대답하셨다. “正邪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침습하여 정해진 부위에 있지 않고, 도리어 臟으로 넘쳐 스며들어 정해진 거처를 알지 못하고 營衛와 함께 흐르며 魂魄과 함께 날아 오르면 그 사람이 편히 잠들 수 없고 자주 꿈을 꾸게합니다. 邪氣가 腑로 침습하면 외부가 有餘하고 내부가 부족하게 되며 邪氣가 臟에 침습하면 내부가 有餘하고 외부가 부족하게 됩니다.”

## 第二章. 氣의 有餘不足에 따른 꿈의 형태

### 第一節 十二盛

#### 【原文】

黃帝曰有餘不足이有形乎<sup>1</sup>과 岐伯이曰陰氣盛<sup>1</sup>則夢涉<sup>1</sup>大水而恐懼<sup>2</sup>(<sup>2</sup>)하고 陽氣盛<sup>3</sup>則夢大火而燔炳<sup>4</sup>(<sup>3</sup>)하고 陰陽俱盛<sup>5</sup>則夢相殺<sup>6</sup>하며 上盛則夢飛<sup>7</sup>하고 下盛則夢墮<sup>8</sup>하며 甚飢則夢取하고 甚飽則夢予<sup>9</sup>라 肝氣盛則夢怒하고 肺氣盛則夢恐懼哭泣<sup>4</sup>飛揚<sup>10</sup>하고 心氣盛則夢善笑恐畏<sup>11</sup>하고 脾氣盛則夢歌樂하고 身體重不舉<sup>12</sup>하며 腎氣盛則夢腰脊兩解<sup>5</sup>不屬<sup>13</sup>(<sup>6</sup>)하니 凡<sup>14</sup>此十二盛者는 至<sup>7</sup>而寫之면 立已니이다

#### 【校勘】

1) 陰氣盛: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若陰氣盛’으로 되어 있고, 『素問』 「脈要精微論」, 『太素』卷十四 「四時脈診」, 『甲乙』卷六 第八,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 및 『醫說』卷五에는 모두 ‘陰盛’으로 되어 있다.

2) 大水而恐懼: 『素問』 「脈要精微論」과 『太素』卷十四 「四時脈診」 및 『醫說』卷五에는 모두 ‘大水恐懼’로 되어 있다.

3) 陽氣盛: 『素問』 「脈要精微論」, 『太素』卷十四 「四時脈診」, 『甲乙』卷六 第八,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 및 『醫說』卷五에는 모두 ‘陽盛’으로 되어 있다.

4) 夢大火而燔炳: 『列子』 「周穆王篇」에는 ‘夢涉大火而燔炳’로 되어 있고,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夢蹈大火而燔炳’로 되어 있으며, 『素問』 「脈要精微論」과 『太素』卷十四 「四時脈診」 및 『醫說』卷五에는 모두 ‘夢大火而燔炳’으로 되어 있고,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夢大火而燔炳’로 되어 있다.

5) 陰陽俱盛: 『醫統』卷七十 「諸夢敘論」에는 ‘陰陽俱病’으로 되어 있다.

6) 夢相殺: 『列子』 「周穆王篇」에는 ‘夢生殺’로 되어 있고, 『素問』 「脈要精微論」과 『太素』卷十四 「四時脈診」, 『甲乙』卷六 第八,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 『醫說』卷五 및 『太平』卷三十九 「敘夢類」에는 모두 ‘夢相殺毀傷’으로 되어 있다.

7) 夢飛: 『太素』卷十四 「四時脈診」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夢飛揚’으로 되어 있다.

8) 下盛則夢墮: 『周本』, 『日刻本』 및 『類經』卷十八 夢寐篇에는 모두 '下甚則夢墮'로 되어 있고, 『醫統』卷七十 「諸夢敘論」에는 '下虛則夢墮'로 되어 있으며, 『太素』卷十四 「四時脈診」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모두 '下盛則夢墮'로 되어 있다.

9) 甚飢則夢取 甚飽則夢予: 『列子』, 『周穆王篇』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모두 '甚飢則夢取 甚飽則夢與'로 되어 있고, 『醫說』卷五에는 '飢則夢取 飽則夢予'로 되어 있으며,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甚飢則夢臥 甚飽則夢行'으로 되어 있다.

10) 夢恐懼哭泣飛揚: 『素問』, 『脈要精微論』에는 '夢哭'으로 되어 있고, 『太素』卷十四 「四時脈診」에는 '夢哀'로 되어 있으며,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과 『太平』卷三十九 「敘夢類」에는 모두 '夢恐懼哭泣'으로 되어 있다.

11) 夢善笑恐畏: 『日刻本』에는 '夢善笑恐畏'로 되어 있고, 『中藏經』卷上 第二十四와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夢善笑及恐畏'로 되어 있으며, 『太平』卷三十九와 『醫統』卷七十 「諸夢敘論」에는 '夢善笑'로 되어 있다.

12) 身體重不舉: 『脈經』卷六 第五와 『甲乙』卷六 第八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體重不舉手足'으로 되어 있고,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와 『太平』卷三十九 「敘夢類」에는 모두 '體重身不舉'로 되어 있다.

13) 夢腰脊兩解不屬: 『脈經』卷六 第九에는 '夢腰脊兩解不相屬'으로 되어 있고, 『甲乙』卷六 第八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夢腰脊兩解而不屬'으로 되어 있으며, 『太平』卷三十九 「敘夢類」에는 '夢脊兩解不屬'으로 되어 있다.

14) 凡: 『太素』卷十四 「四時脈診」에는 凡字 앞에 '心氣盛 則夢善笑恐畏 脾氣盛 則夢歌樂 身體重不舉 腎氣盛 則夢腰脊兩解不屬'이 없고 '短蟲多則夢衆 長蟲多則夢相擊破傷'이 더 있다.

### 【字句解】

- (1) 涉: 건널 설.
- (2) 恐懼(공구): 두려워하는 모양.
- (3) 燔炳(번설): 불타오르는 모양. ※燔 사를 번, 炳 불사를 설.

- (4) 哭泣(곡읍): 울면서 눈물 흘리는 모양.
- (5) 解: 判也, 쪼갬 해, 떨어질 해.
- (6) 屬: 附也, 붙일 속.
- (7) 至: 邪氣가 있는 부위를 정확히 아는 것.

### 【較註】

〔1〕陰氣盛 則夢涉大水而恐懼 陽氣盛 則夢大火而燔炳 陰陽俱盛 則夢相殺

馬景岳校釋庸傑郭은 "陰氣는 營氣니 營氣가 盛하면 큰 물을 건너면서 두려워하는 꿈을 꾸는 것은 대개 물이 陰에 속하기 때문이다. 陽氣는 衛氣니 衛氣가 盛하면 큰불이 활활 타오는 꿈을 꾸는 것은 대개 불이 陽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陰陽이 모두 盛하면 營衛氣가 모두 盛한 것이니 內外가 모두 有餘하고 陰陽이 서로 交爭하므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꿈을 꾸게 된다.8)"라고 하였고,

張은 "원래는 肌肉과 募原사이에 침습하는데 도리어 臟으로 들어가면 내부가 有餘하여 五臟의 陰陽이 盛하게 되니 陰氣가 盛하면 큰물을 건너면서 두려워하는 꿈을 꾸고 陽氣가 盛하면 큰불이 활활타오르는 꿈을 꾸게 되니 이는 心腎이 有餘한 것이요, 陰陽이 모두 有餘하면 心氣는 肺로 아우르고 腎氣는 肝으로 아울러서 서로 몽둥이와 칼로 싸우는 꿈을 꾸니 이는 肝肺가 有餘한 것이다.9)"라고 하였다.

〔2〕上盛則夢飛 下盛則夢墮 甚飢則夢取 甚飽則夢予

- 8) ●馬: 陰氣者는 營氣也니 營氣盛 則夢涉大水而有恐懼之狀은 蓋大水屬陰故也라 陽氣者는 衛氣也니 衛氣盛 則夢見大火而有燔炳之勢는 蓋大火屬陽故也라 若陰陽俱盛 則營衛二氣皆盛也니 內外有餘하고 陰陽相爭하야 其夢主於相殺이라 ○景岳: 以陰勝陽 故로 夢多陰象하고 以陽勝陰 故로 夢多陽象하고 俱盛則爭 故로 夢相殺이라 ○校釋: 燔炳은 燒灼之意라 ○庸: 涉은 步行渡水요 踏는 脚踩요 燔炳은 焚燒라 ○傑: 燔은 晉煩이니 就是燒和炙요 炳은 晉炳이니 也是燒灼의意思라 ○郭: 燔은 應從天中記作炳이니 炳은 炳形誤라 燔은 與焚語轉이라 說文火部에 炳은 明也라하니 燔炳은 是謂大火焚燒的光亮이라
- 9) ●張: 今反淫於臟 則有餘於內하야 而五臟之陰陽盛矣라 陰氣盛 則夢涉大水恐懼하고 陽氣盛 則夢大火燔炳하니 此는 心腎之有餘也요 陰陽俱有餘 則心氣并於肺하고 腎氣并於肝하야 而夢相殺이니 相殺者는 挺刃交擊也니 此는 肝肺之有餘也라

馬庸은 “또한 手部는 陽에 속하므로 上部에 邪氣가 盛하면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足部는 陰에 속하므로 下部에 邪氣가 盛하면 떨어지는 꿈을 꾸다. 만약 너무 배고프면 취하려는 꿈을 꾸고, 너무 배부르면 남에게 주려는 꿈을 꾸다.10)”라고 하였고,

景岳은 “陽이 勝한 者는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陰이 勝한 者는 내려가는 것을 좋아한다. 너무 배고프면 취하려는 꿈을 꾸는 것은 不足하기 때문이요, 너무 배부르면 남에게 주려는 꿈을 꾸는 것은 有餘하기 때문이다.11)”라고 하였고,

張은 “무릇 魂은 위로 흘러다니고 魄은 下降하니 上部가 盛하면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下部가 盛하면 떨어지는 꿈을 꾸는 것은 魂과 魄이 有餘하여 날아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이요, 배고프면 취하려는 꿈을 꾸고 배부르면 남에게 주려는 꿈을 꾸는 것은 脾胃가 有餘한 것과 不足한 것이니 이는 邪氣와 五臟의 神氣가 遊行하여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2)”라고 하였고,

庸은 “邪氣가 魂魄과 더불어 上部로 遊行하는 까닭에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邪氣가 魂魄과 더불어 下部로 遊行하는 까닭에 떨어지는 꿈을 꾸다. 甚은 太過한 것이요, 取는 거두어 들이는 것이요, 予는 주는 것이다.13)”라고 하였다.

[3] 肝氣盛 則夢怒

馬·景岳·張·庸은 “肝氣가 盛하면 怒하는 꿈을 꾸는 것은 肝의 志가 怒이기 때문이다.14)”라고 하였다.

[4] 肺氣盛 則夢恐懼哭泣飛揚

- 10) 馬: 且手部屬陽 故로 上部邪盛 則夢飛揚하고 足部屬陰 故로 下部邪盛 則夢墜墜라 如飢至太甚 則夢有所取하고 如飽之太甚 則夢有所予라
- 11) ●景岳: 陽勝者는 親乎上也요 陰勝者는 親乎下也라 甚飢則夢取는 因不足也요 甚飽則夢予는 因有餘也라
- 12) ●張: 夫魂游魄降하나니 上盛 則夢飛하고 下盛 則夢墜하나니 此는 魂魄之有餘上下也라 飢則夢取하고 飽則夢予하나니 是는 脾胃之有餘不足也니 此는 邪與五臟之神氣遊行하야 而形之於夢也라
- 13) 庸: 邪氣與魂魄이 游行于上部 故로 夢飛升而應之하고 邪氣與魂魄이 游行于下部 故로 夢墜墜而應之라 甚은 太過也요 取는 收取요 予는 給予라
- 14) 馬: 肝之邪盛 則夢多怒는 以肝之志爲怒也라 ●景岳: 肝氣盛 則夢怒는 肝在志爲怒也라 ○庸: 邪氣并于肝하야 肝氣實 則夢怒라

馬庸은 “肺의 邪氣가 盛하면 두러워하면서 목을 놓아 울고 날아오르는 꿈을 꾸는 것은 肺의 聲이 哭이기 때문이다.15)”라고 하였고,

景岳은 “肺氣가 盛하면 두러워하면서 목을 놓아 울고 날아오르는 꿈을 꾸는 것은 肺의 志가 憂이므로 두러워하면서 목을 놓아 우는 꿈을 꾸고, 肺는 氣를 主管하므로 날아오르는 꿈을 꾸다.16)”라고 하였다.

[5] 心氣盛 則夢善笑恐畏

馬·景岳은 “心氣가 盛하면 잘 웃고 恐畏하는 꿈을 꾸는 것은 心의 志가 喜이고 變動이 憂이기 때문이다.17)”라고 하였고,

庸은 “邪氣가 心에 아우르면 기뻐하는데 뜻이 기쁘면 소리내어 웃는다. 悲와 畏는 腎의 志이니 만약 心의 邪氣가 盛하여 腎을 相侮하면 슬프거나 두러워하는 꿈을 꿀 수 있다.18)”라고 하였다.

[6] 脾氣盛 則夢歌樂 身體重不舉

馬·景岳·庸은 “脾氣가 盛하면 노래하면서 즐거워하거나 몸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은 脾가 기쁘면 音이 즐거워지고 脾의 소리는 歌이며 肌肉을 主管하기 때문이다.19)”라고 하였다.

[7] 腎氣盛 則夢腰脊兩解不屬

馬·景岳·庸은 “腎氣가 盛하면 腰脊이 떨어져 연결되지 않는 꿈을 꾸는 것은 腰가 腎의 府이므로 腰脊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꿈을 꾸다.20)”라고 하였고,

- 15) 馬: 肺之邪盛 則夢恐懼哭泣而飛揚은 以肺之聲爲哭也라 ○庸: 邪氣并于肺 則夢悲라
- 16) 景岳: 肺氣盛 則夢恐懼哭泣而飛揚은 肺在志爲憂 故로 夢恐懼哭泣하고 肺主氣 故로 夢飛揚이라
- 17) 馬: 心之邪盛 則夢善笑而恐畏는 以心之聲爲笑 而其志主於憂也라 ●景岳: 心氣盛 則夢善笑恐畏는 心在志爲喜요 在變動爲憂也라
- 18) 庸: 邪氣并于心 則喜하고 志喜 則發聲爲笑라 悲畏는 爲腎志니 若心邪盛而侮及腎 則可夢見悲畏之事라
- 19) 馬: 脾之邪盛 則夢歌樂及體重不能舉는 以脾之聲爲歌 而其體主肉也라 ●景岳: 脾氣盛 則夢歌樂 身體重不舉는 脾喜音樂하고 在聲爲歌며 其主肌肉也라 ○庸: 脾는 在志爲思요 在聲爲歌요 主肌肉四肢하나니 邪氣并于脾 故로 夢見歌唱音樂하고 身體沈重而舉動不便이라
- 20) 馬: 腎之邪盛 則夢腰脊兩解하야 不相連屬은 以腰爲腎之府也라 ●景岳: 腎氣盛 則夢腰脊兩解不屬은 腰爲

庸은 “兩解는 바로 양쪽이 分離된다는 것이요 屬은 連屬이니 腰脊兩解不相屬은 腰脊이 아파서 능히 구부리거나 펼 수도 없고 돌아 누울 수 없는 病態를 설명하는 것이다.”<sup>21)</sup>”라고 하였다.

[8] 凡此十二盛者 至而瀉之 立已

楊은 “이 十一種의 꿈은 모두 病夢이니 陰陽氣의 盛衰, 飢飽, 肝肺氣의 盛과 長短蟲이 많은 것에 인하여 꿈을 꾸는 것이다. 이는 邪氣가 침습한 것에 따라 나타나는 꿈이니 꿈으로 진찰하는 방법이다. 여기의 夢診에는 네 개의 問答이 빠져있다.”<sup>22)</sup>”라고 하였고,

馬·景岳·郭은 “陽이 盛하면 腑가 有餘하고 陰이 盛하면 臟이 有餘하니 邪氣의 所在를 관찰하여 鍼으로 瀉하면 곧 낫는다.”<sup>23)</sup>”라고 하였고,

張은 “무릇 이 十二盛者는 邪氣가 臟으로 침습하여 內部에서 有餘한 것이므로 瀉하면 바로 낫는다.”<sup>24)</sup>”라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夢大火而燔燭’이 『列子』에는 ‘夢涉大火而燔燭’로 되어 있고, 『千金』에는 ‘夢蹈大火而燔燭’로 되어 있으며, 『素問』과 『太素』 및 『醫說』에는 모두 ‘夢大火而燔灼’으로 되어 있고, 『病源』에는 ‘夢大火而燔熱’로 되어 있는

데, 위의 ‘夢涉大水而恐懼’와 對句를 이루고 있으므로 ‘夢蹈大火而燔燭’이 옳다고 본다.

‘下盛則夢墮’가 『周本』, 『日刻本』, 『類經』에는 모두 ‘下甚則夢墮’로 되어 있고, 『醫統』에는 ‘下虛則夢墜’로 되어 있으며, 『太素』와 『千金』에는 모두 ‘下盛則夢墮墜’로 되어 있는데, 氣의 多少에 대해 ‘甚’보다는 ‘盛’을 많이 쓰며, ‘墮’와 ‘墜’는 의미가 같다. 또한 『醫統』의 ‘下虛’는 전사할 때 오류를 범한 것 같다.

‘夢恐懼哭泣飛揚’이 『素問』에는 ‘夢哭’으로 되어 있고, 『太素』에는 ‘夢哀’로 되어 있으며, 『千金』과 『太平』에는 모두 ‘夢恐懼哭泣’으로 되어 있는데, 3章의 ‘客于肺 則夢飛揚’의 내용을 살펴볼 때 虛實의 차이가 있으므로 ‘夢恐懼哭泣’이 옳다.

‘身體重不舉’가 『脈經』, 『甲乙』, 『千金』에는 ‘體重不舉手足’으로 되어 있고, 『病源』과 『太平』에는 모두 ‘體重身不舉’로 되어 있는데, ‘舉’는 行動舉止의 의미이고 手足을 들 수 없다는 의미는 부족하므로 원문의 내용이 옳다.

『太素』에는 凡字 앞에 ‘心氣盛 則夢善笑恐畏 脾氣盛 則夢歌樂 身體重不舉 腎氣盛 則夢腰脊兩解不屬’이 없고 ‘短蟲多則夢衆 長蟲多則夢相擊破傷’이 더 있는데, 章 전체의 내용이 ‘反淫于藏’에 대한 부연 설명이므로 『太素』의 것은 옳지 못하다.

[較註에 對한 考察]

‘陰氣盛, 陽氣盛, 陰陽俱盛’에 대하여 馬·景岳 등은 陰氣를 營氣, 陽氣를 衛氣로 보고 陰氣盛을 營氣가 盛한 것, 陽氣盛을 衛氣가 盛한 것, 陰陽俱盛을 營衛氣가 모두 盛한 것으로 파악한데 반해, 張은 陰陽氣를 五臟의 陰陽으로 보고 陰氣盛을 腎의 有餘로 陽氣盛을 心의 有餘로, 陰陽俱盛을 心氣는 肺에 腎氣는 肝에 아우러져 나타나는 肝肺의 有餘로 보았는데, 아래에 五臟에 침습하였을 때 나타나는 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馬·景岳 등의 주장이 옳다.

‘上盛則夢飛 下盛則夢墮’에서 上下의 의미에 대하여 馬는 手足으로 보았고, 景岳은 陰陽으로 보았으며, 張은 魂魄으로 보았는데, 馬 등의 주장에 비해 景岳·張의 주장이 합리적이다.

‘甚飢則夢取 甚飽則夢予’에 대하여 張은 脾胃氣의 有餘不足으로 보았는데, 이는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을

腎之府 故로 若腰脊不相連屬이라

- 21) 庸: 兩解는 卽雙方分離요 屬은 連屬이니 腰脊兩解不相屬은 形容腰脊疼痛而不能轉側俯仰의 病情이라
- 22) 楊: 此十一種夢은 皆病夢也니 竝因陰陽氣之盛衰와 內有飢飽와 肝肺氣盛과 長短蟲多以爲夢也라 此는 所以因傷致夢이니 卽以夢爲診也라 此爲夢診에 可爲四答問之脫也라
- 23) 馬: 凡此十二盛者는 在腑 則有餘於外하고 在臟 則有餘於內하니 凡有夢至時에 卽知其邪之在何臟腑니 遂用鍼以瀉之면 其邪可立已矣라 蓋腑夢엔 瀉腑하고 臟夢엔 瀉臟也라 ●景岳: 陽盛 則有餘於府하고 陰盛 則有餘於藏하니 但察其邪之所在하야 而以鍼瀉之則已라 ○郭: 至는 猶云了解니 呂氏春秋 當雜 高注에 至는 猶得也라하고 先已 高注에 得은 猶知也라하니 至而瀉之는 是謂了解邪之所在而用瀉法이라
- 24) 張: 如肝氣盛則夢怒와 肺氣盛則夢悲와 心氣盛則夢笑와 脾氣盛則夢歌樂과 腎氣盛則夢腰脊不屬은 此邪干五形臟而形之於夢也라 凡此十二盛者는 乃氣淫於臟하야 有餘於內니 故로 瀉之立已라

역지로 五臟에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肺氣盛 則夢恐懼哭泣飛揚’에서 ‘飛揚’에 대하여 馬庸은 二節의 ‘客于肺 則飛揚’의 내용이 잘못 들어온 것으로 보고 삭제하였는데 반해, 景岳은 肺가 氣를 주관하므로 飛揚한다고 주장하였으니 잘못된 견해이다.

‘心氣盛 則夢善笑恐畏’에서 ‘恐畏’에 대하여 馬景岳은 心的變動이 憂이기 때문으로 보았고, 庸은 心氣가 盛하여 腎氣를 相侮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馬景岳의 주장이 옳다.

‘腎氣盛 則夢腰脊兩解不屬’에 대하여 庸은 다른 註家와는 달리 腰脊이 아파서 능히 구부리거나 펼 수도 없고 돌아 누울 수 없는 病態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논술하였다.

‘十二盛者’에 대하여 馬景岳 庸은 陽이 盛하면 肺가 有餘하고 陰이 盛하면 臟이 有餘한 것으로 보았는데, 張은 邪氣가 모두 五臟으로 침습하여 內部에서 有餘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억지가 있다.

### 【直譯】

黃帝께서 물으셨다. “有餘하고 부족한 것이 꿈의 형태로 나타납니까?”

岐伯이 대답하셨다. “陰氣가 盛하면 큰물을 건너면서 두려워하는 꿈을, 陽氣가 盛하면 큰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을, 陰陽이 모두 盛하면 서로 죽이는 꿈을 끕니다. 上部가 盛하면 날오는 꿈을, 下部가 盛하면 떨어지는 꿈을, 심하게 굶주리면 받는 꿈을, 심하게 배부르면 나눠주는 꿈을 끕니다. 肝氣가 盛하면 怒하는 꿈을, 肺氣가 盛하면 두려워서 소리내어 울고 날아오르는 꿈을, 心氣가 盛하면 잘 웃거나 두려워하는 꿈을, 脾氣가 盛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거나 몸이 무거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꿈을, 腎氣가 盛하면 腰脊이 분리되어 어저지 않는 꿈을 끕니다. 이 열두가지 盛한 것은 邪氣가 이른 것을 瀉하면 바로 낫습니다.”

## 第二節. 十五不足

### 【原文】

厥氣<sup>1)</sup>客<sup>(1)</sup>于心 則夢見丘山煙<sup>(2)</sup>火<sup>(2)</sup> 하고 客于

肺 則夢飛揚<sup>하며</sup> 見金鐵之奇物<sup>3)</sup> 하고 客于肝 則夢山林樹木<sup>4)</sup> 하고 客于脾 則夢見丘陵大澤<sup>5)</sup> 하며 壞屋風雨<sup>6)</sup> 하고 客于腎 則夢臨淵<sup>7)</sup> 沒<sup>(3)</sup> 居水中<sup>8)</sup> 이라 客于膀胱 則夢遊行<sup>하고</sup> 客于胃 則夢飲食<sup>하고</sup> 客于大腸 則夢田野<sup>하고</sup> 客于小腸 則夢聚邑衝衢<sup>9)(4)</sup> 하고 客于膽 則夢鬪訟<sup>(5)</sup> 自刳<sup>(10)(6)</sup> 라 客于陰器<sup>11)</sup> 則夢接內<sup>(12)(7)</sup> 하고 客于項 則夢斬首<sup>(13)(8)</sup> 하고 客于脛<sup>(14)(9)</sup> 則夢行走而不能前<sup>(15)</sup> 하며 及居深地窞<sup>(10)</sup> 苑中<sup>(16)</sup> 하고 客于股肱<sup>(17)(11)</sup> 則夢禮節拜起<sup>(18)</sup> 하고 客于胞臚<sup>(19)(12)</sup> 則夢溲便<sup>(20)(13)</sup> 하니 凡此十五不足者<sup>(21)</sup> 是 至而補之<sup>(22)</sup> 則 立已也<sup>니라</sup>

### 【校勘】

1) 厥氣: 『中藏經』卷上 第二十二에는 ‘邪氣’로 되어 있다.

2) 夢見丘山煙火: 『中藏經』卷上 第二十二에는 ‘夢丘山煙火’로 되어 있고,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夢見山岳燦火’로 되어 있으며, 『太平』卷三十九 ‘敘夢類’에는 ‘夢見丘山燦火’로 되어 있다.

3) 見金鐵之奇物: 『甲乙』卷六 第八에는 ‘見金鐵之器及奇物’로 되어 있고, 『脈經』卷六 第七과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와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모두 ‘見金鐵之器奇物’로 되어 있다.

4) 夢山林樹木: 『中藏經』卷上 第二十二에는 ‘夢山林茂盛’으로 되어 있다.

5) 夢見丘陵大澤: 『脈經』卷六 第五와 『中藏經』卷上 第二十六에는 모두 ‘夢丘陵大澤’으로 되어 있다.

6) 壞屋風雨: 『中藏經』卷上 第二十六에는 ‘風雨壞屋’으로 되어 있다.

7) 夢臨淵: 『中藏經』卷中 第三十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모두 ‘夢臨深’으로 되어 있다.

8) 沒居水中: 『中藏經』卷中 第三十에는 ‘投水中’으로 되어 있고,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沒于水中’으로 되어 있다.

9) 夢聚邑衝衢: 『甲乙』卷六 第八에는 ‘夢聚邑行街’로 되어 있고,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夢游聚邑衝衢’로 되어 있으며, 『脈經』卷六 第四와 『千金』卷一 ‘

序例 診候」第四와 『太平』卷三十九 「敍夢類」에는 모두 '夢聚邑街衢'로 되어 있다.

10) 夢鬪訟自割: 『脈經』卷六 第二와 『中藏經』卷上 第二十三에는 모두 '夢鬪訟'으로 되어 있고,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夢鬪訟自割'로 되어 있다.

11) 客于陰器: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와 『太平』卷三十九 「敍夢類」에는 '客于陰'으로 되어 있다.

12) 夢接內: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夢交接間內'로 되어 있다.

13) 夢斬首: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夢多斬首'로 되어 있다.

14) 客于脛: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客于跨'로 되어 있고, 『太平』卷三十九 「敍夢類」에는 '客于足'으로 되어 있다.

15) 行走而不能前: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行走而不能前進'으로 되어 있고, 『太平』卷三十九 「敍夢類」에는 '行走而不能'으로 되어 있다.

16) 及居深地窳苑中: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又居深地中'로 되어 있고,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池渠穿窳中居'로 되어 있다.

17) 客于股肱: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와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모두 '客于股'로 되어 있다.

18) 禮節拜起: 『甲乙』卷六 第八과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모두 '禮節拜跪'로 되어 있다.

19) 客于胞肱: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客于胞'로 되어 있다.

20) 夢溲便: 『甲乙』卷六 第八에는 '夢溲便利'로 되어 있고, 『千金』卷一 「序例 診候」第四에는 '夢溲溺便利'로 되어 있다.

21) 凡此十五不足者: 『統本』 『金陵本』 『藏本』에는 '凡此有數不足者'로 되어 있고, 『醫統』卷七十 「諸夢敍論」에는 '凡此數不足者'으로 되어 있다.

22) 至而補之: 『病源』卷四 「虛勞喜夢候」에는 '而補之'로 되어 있다.

### 【字句解】

- (1) 客: 寄也, 붙을 객.
- (2) 煙: 火鬱氣, 연기 연.
- (3) 沒: 浸也, 빠질 물.

(4) 衢: 四達道, 네거리 구.

(5) 訟: 爭辯, 송사할 송.

(6) 割: 割也, 가를 고.

(7) 接內(접내): 性交를 말함.

(8) 斬首(참수): 목을 베어 죽임. ※斬: 벨 참.

(9) 脛: 膝以下骨, 정강이 경.

(10) 窳: 窳也, 움 교.

(11) 股肱(고굉): 넓적다리와 팔뚝. ※股 넓적다리, 肱 팔뚝 굉.

(12) 胞肱(포지): 전립선과 直腸.

(13) 溲: 尿也, 오줌 수.

### 【較註】

(1) 厥氣客于心 則夢見丘山煙火

馬景岳은 "厥氣는 곧 下篇의 陰陽喜怒飲食居處를 말하니, 臟腑를 內傷한 邪氣이다. 그 邪氣가 心을 침습하면 山林煙火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心이 火에 속하기 때문이다.<sup>25)</sup>"라고 하였고,

張庸은 "무릇 邪氣가 모이는 곳에 正氣는 반드시 虛해지니 上篇은 邪氣가 有餘한 것을 論한 것이요 此篇은 正氣가 不足한 것을 論한 것이다. 厥氣는 虛한 氣運이 臟腑의 사이에서 厥逆한 것이요 客이라는 것은 臟腑의 外部를 疇박하는 것이다. 厥氣가 心을 侵襲하면 언덕이나 산에 불이 나는 것을 꿈꾸는 것은 心이 火에 속하고 心氣가 虛하기 때문이다.<sup>26)</sup>"라고 하였다.

(2) 客于肺 則夢飛揚 見金鐵之奇物

馬景岳張은 "肺를 侵襲하면 날아오르는 꿈을 꾸는 것은 肺가 氣를 주관하고 肺氣가 虛하기 때문이요 金鐵등의 奇物이 보이는 것은 金氣가 虛하여 異象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다.<sup>27)</sup>"라고 하였다.

25) ●馬: 此는 舉臟腑之十五不足 而發之爲夢者를 言之也라 厥氣者는 卽下篇之陰陽喜怒飲食居處니 凡臟腑內傷之邪也라 其邪氣客於心 則夢見山林煙火는 以心屬火也라 ○景岳: 厥氣客於心 則夢見丘山煙火는 心屬火也라

26) ●張: 夫邪之所湊엔 其正必虛니 上篇은 論邪氣之有餘요 此는 論正氣之不足이라 厥氣者는 虛氣가 厥逆於臟腑之間이요 客者는 搏於臟腑之外也라 客於心 則夢丘山煙火는 心屬火而心氣虛也라 ○庸: 厥氣는 指因虛氣逆而致之邪氣라 丘山은 丘陵이니 此處泛指山鄉이라 煙火는 卽炊煙이라

27) 馬: 邪氣客於肺 則夢飛揚及金鐵之奇物은 以肺屬金也

[3] 客于肝 則夢山林樹木

馬·景岳張은 “肝을 侵襲하면 山林樹木을 꿈꾸는 것은 肝이 木에 속하기 때문이다.”<sup>28)</sup>라고 하였다.

[4] 客于脾 則夢見丘陵大澤 壞屋風雨

馬·景岳張은 “脾를 侵襲하면 丘陵大澤을 꿈꾸는 것은 土氣가 虛하여 水氣가 泛濫한 것이다. 脾는 營의 居處이니 器라고도 하며, 形을 또한 器라고 하니 脾는 肌肉과 形骸를 주관하므로 人氣의 집이 된다. 風雨壞屋은 脾氣가 虛하여 風雨가 집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는 것이다.”<sup>29)</sup>라고 하였다.

[5] 客于腎 則夢臨淵 沒居水中

馬·景岳張·庸은 “腎을 侵襲하면 깊은 연못을 보거나 물속에 빠지는 것을 꿈꾸는 것은 腎氣가 虛陷하기 때문이다.”<sup>30)</sup>라고 하였다.

[6] 客于膀胱 則夢遊行

馬·景岳張은 “膀胱에 침습하면 널리 돌아다니는 꿈을 꾸는 것은 膀胱 足太陽經이 三陽의 表에 속하고 頭·項·背·腰·胎·足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sup>31)</sup>라고 하였다.

라 ○景岳: 客於肺 則夢飛揚 見金鐵之奇物은 肺屬金也라 ●張: 客於肺 則夢飛揚은 肺主氣而肺氣虛也요 金鐵之奇物은 金氣虛而見異象也라

28) 馬: 邪氣客於肝 則夢見山林樹木은 以肝屬木也라 ●景岳: 客於肝 則夢山林樹木은 肝屬木也라 ○張: 客於肝 則夢山林樹木은 肝氣之變幻也라

29) 馬: 邪氣客於脾 則夢見丘陵大澤 壞屋風雨는 以脾屬土也라 ○景岳: 客於脾 則夢見丘陵大澤 壞屋風雨는 脾屬土하고 其主濕也라 ●張: 客於脾 則夢丘陵大澤은 土虛而水泛也라 脾者는 營之居也니 名曰器라 夫形을 謂之器라하니 脾主肌肉形骸하니 乃人之氣宇라 夢風雨壞屋者는 脾氣虛而爲風雨所壞也라

30) 馬: 邪氣客於腎 則夢臨於深淵 或沒居於水中은 以腎屬水也라 ○景岳: 客於腎 則夢臨淵 沒居水中은 腎屬水也라 ●張: 客於腎 則夢臨淵 沒居水中은 腎氣虛陷也라 ○庸: 臨은 遇也요 淵은 深潭이요 沒居水中은 卽淹沒在水裏라

31) 馬: 邪氣客於膀胱則夢出遊行은 以膀胱經이 徧行頭項背腰胎足也라 ●景岳: 客於膀胱則夢遊行은 膀胱이 爲足之太陽經이요 屬三陽之表也라 ○張: 客於膀胱 則夢遊行은 太陽之氣虛行也라

[7] 客于胃 則夢飲食

馬·景岳張은 “胃에 침습하면 음식을 먹는 꿈을 꾸는 것은 胃가 水穀之海이며 納食을 주관하기 때문이다.”<sup>32)</sup>라고 하였다.

[8] 客于大腸 則夢田野

馬·景岳張은 “大腸에 침습하면 田野를 꿈꾸는 것은 大腸이 傳道之官이 되고 굽이굽이 넓게 퍼져 있어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田野와 같기 때문이다.”<sup>33)</sup>라고 하였다.

[9] 客于小腸 則夢聚邑衝衢

馬·景岳張·丹波·傑·郭·校·釋·庸은 “小腸에 침습하면 네 거리에 모두 모여 뜰을 형성하는 꿈을 꾸는 것은 小腸이 受盛之官이 되니 糟粕등 物件이 모이는 것이 뜰의 네 거리와 같기 때문이다.”<sup>34)</sup>라고 하였다.

[10] 客于膽 則夢鬪訟自刎

馬는 “邪氣가 膽을 침습하면 싸우며 스스로 할복하는 꿈을 꾸는 것은 膽은 木에 屬하고 脾는 土와 肉을 主管하니 木이 능히 土를 克하여 肉이 傷하게 되기 때문이다.”<sup>35)</sup>라고 하였다.

32) 馬: 邪氣客於胃 則夢飲食은 以胃主納食也라 ●景岳: 客於胃 則夢飲食은 胃爲水穀之海也라 ○張: 客於胃 則夢飲食은 虛則夢取也라

33) 馬: 邪氣客於大腸 則夢田野는 以大腸이 爲傳道之官이요 其曲折廣大가 似田野也라 ●景岳: 客於大腸 則夢田野는 大腸이 爲傳導之官이요 其曲折納汚가 類田野也라 ○張: 田野者는 水穀之所生也이요 大腸爲傳道之官이니 主受水穀之餘하야 濟泌別汁이라 止夢見田野者는 大腸之氣虛也라

34) 馬: 邪氣客於小腸 則夢會聚之邑居커나 或衝要之道衢는 以小腸이 爲受盛之官이니 其物之所聚似邑衢也라 ●景岳: 客於小腸 則夢聚邑衝衢는 小腸爲受盛之官이니 物之所聚가 類邑衢也라 ○張: 夫聚邑衝衢는 乃通聚貨物之處요 小腸은 受盛化物하니 止夢見邑衢者는 小腸之氣虛也라 ○丹波: 按컨대 衝은 說文에 通道也라하니 與街同義라 氣衝을 一名氣街라하니 可證이라 ○傑: 聚邑은 是人衆聚集的通都大邑이요 衝은 通道也니 衝衢는 就是四通八達的交通要道라 ○郭: 聚邑은 猶云聚會라 釋名 釋州國에 邑은 猶悒也라하니 邑人聚會之稱也라 ○校釋: 聚邑은 指聚集着很多人的地方이요 衝衢는 指交通要衢이라 ○庸: 邑은 城市요 衝衢는 交通要道라

35) 馬: 邪氣客於膽 則夢鬪訟自刎은 以膽屬木하고 脾主土與肉하니 木能剋土而肉傷也라

景岳張傑校釋庸은 “膽에 침습하면 싸우며 스스로 할복하는 꿈을 꾸는 것은 膽은 決斷을 主管하니 그 氣가 剛하기 때문이다.36)”라고 하였다.

[11] 客於陰器 則夢接內

馬는 “馬: 邪氣가 陰器를 침습하면 性交하는 꿈을 꾸는 것은 陰器가 作強之官이므로 欲情이 흐르는 곳이 때문이다.37)”라고 하였다.

[12] 客於項 則夢斬首

馬는 “邪氣가 項을 침습하면 斬首당하는 꿈을 꾸는 것은 項이 邪氣의 損傷을 받았기 때문이다.38)”라고 하였다.

景岳은 “項에 침습하면 斬首당하는 꿈을 꾸는 것은 恐怖로 말미암아서이다.39)”라고 하였다.

張은 “陽氣는 모두 項을 따라 頭로 올라가는 까닭에 頭가 諸陽之首가 된다. 邪氣가 項을 침습하면 陽氣가 頭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斬首당하는 꿈을 꾀다.40)”라고 하였다.

[13] 客於脛 則夢行走而不能前 及居深地窳苑中

馬景岳은 “脛에 침습하면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깊은 수렁이나 숲에 빠져 있는 것같은 꿈을 꾸는 것은 厥逆한 邪氣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窳는 움집(窟)과 같다.41)”라고 하였다.

- 36) ●景岳: 客於膽 則夢鬪訟自刎는 膽主決斷하니 其氣剛也라 刎는 剖腹也라 ○張: 膽爲中正之官이니 決斷出焉 故로 厥氣客於膽 則夢鬪訟自剖라 ○傑: 刎는 剖也니 自刎는 就是剖腹自殺이라 ○校釋: 刎는 剖割의 意思라 ○庸: 鬪는 爭鬪요 訟은 訴訟爭論이라 刎는 剖開니 自刎는 自己剖腹이라
- 37) 馬: 邪氣客於陰器 則夢接內는 以陰器가 爲作強之官也라 ●景岳: 客於陰器 則夢接內는 慾念之所注也라 ○張: 客於陰器 則夢接內는 正氣泄也라 ○庸: 接內는 指性交라
- 38) 馬: 邪氣客於項 則夢斬首는 以項爲邪所傷也라
- 39) 景岳: 客於項 則夢斬首는 恐怖之所及也라
- 40) 張: 陽之氣는 皆循項而上於頭 故로 頭爲諸陽之首라 客於項 則陽氣不能上於頭 故로 夢斬截其首也라
- 41) 馬: 邪氣客於足脛 則夢行走不能前하고 及居深地窳苑中은 以脛爲邪所傷하야 行走不能也라 ●景岳: 客於脛 則夢行走而不能前하고 及居深地窳苑中은 厥逆之邪在下也라 窳는 窟同이라

張은 “脛에 침습하면 달려도 나아가지 못하는 꿈을 꾸는 것은 脛氣가 虛한 때문이요, 足은 陰이 되니 깊은 수렁이나 숲에 빠져 있는 꿈을 꾸는 것은 地氣가 下陷했기 때문이다.42)”라고 하였다.

丹波는 “千金에는 居深地窳苑中이 居深渠窳窳로 되어 있는데, 考工記를 살펴보면 困窳倉城의 註에 地를 窳라하고 窳는 說文에 陷也라하며 窳는 音이 '와'이니 凹也라하였다. 苑은 아마도 잘못된 글자이다.43)”라고 하였다.

校釋庸傑은 “窳는 깊다는 뜻이요 苑은 古代에 禽獸를 기르거나 나무를 심는 지역을 말하니 窳苑은 숲이 울창한 園林을 말하므로 居深地窳苑中은 깊은 수렁이나 늪에 빠지거나 或 숲사이에서 잘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44)”라고 하였다.

[14] 客於股肱 則夢禮節拜起

馬庸은 “邪氣가 股肱을 침습하면 禮節을 다하여 절하는 꿈을 꾸는 것은 절하는 것은 股肱에서 주관하기 때문이다.45)”라고 하였다.

景岳張은 “股肱에 침습하면 禮節을 다하여 절하는 꿈을 꾸는 것은 勞倦하여 手足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46)”라고 하였다.

[15] 客於胞臑 則夢溲便

馬는 “邪氣가 胞臑를 침습하면 溲便보는 것을 꿈꾸는 것은 膀胱은 胞臑의 집이 되고 胞臑는 膀胱의 안에 있는 까닭에 邪氣가 침습하면 便을 溲한다.47)”라고 하였다.

- 42) 張: 客於脛 則夢行走不前은 脛氣虛也요 足爲陰이니 深居地窳苑中은 地氣下陷也라
- 43) 丹波: 千金엔 作深渠窳窳라 按考工記컨대 困窳倉城 註에 穿地曰窳라하고 窳는 說文에 陷也라하고 窳는 音烏瓜切 窪니 凹也라 苑은 疑字誤라
- 44) 校釋: 窳는 同窟니 指地窳而言이요 苑은 指古代養禽獸하고 植林木의 地方을 稱苑이라 ●庸: 窳는 深이요 苑은 古代飼禽獸或植林木의 地方이니 窳苑은 指幽深의 園林이라 居深地窳苑中은 形容困陷于泥沼或從林中走不出來라 ○傑: 窳는 與窳同이요 苑은 卽園이니 窳苑은 就是地窳라
- 45) ●馬: 邪氣客於股肱 則夢禮節拜起는 以拜起主於股肱也라 ○庸: 禮節拜起는 指行跪拜之禮에 跪拜必動股肱 故로 邪在股肱而夢見之라
- 46) ●景岳: 客於股肱 則夢禮節拜起는 勞倦之所致也라 ○張: 客於股肱 則夢禮節拜起者는 手足不寧也라
- 47) 馬: 邪氣客於胞臑하면 則夢溲便是 以膀胱爲胞臑之室이요 而胞臑在膀胱之內 故로 邪客之 則溲便也라

였고,

景岳張傑校釋庸은 “胞는 오줌보이고 臚는 大腸이니 邪氣가 前陰에 있으면 오줌싸는 꿈을 꾸고 後陰에 있으면 대변보는 꿈을 꾀다.”<sup>48)</sup>라고 하였다.

[16] 凡此十五不足者 至而補之立已也

馬는 “무릇 이 十五不足者는 邪氣가 腑에 있으면 안 이 不足하고 臟에 있으면 밖이 不足해진다. 무릇 꿈을 꾸는 것을 보고 바로 그 邪氣가 어느 臟腑에 있는지를 알아서 鍼으로 補하면 바로 치료할 수 있다. 대개 腑夢에는 臟을 補하고 臟夢에는 腑를 補한다.”<sup>49)</sup>라고 하였다.

景岳張章은 “윗 章은 邪氣가 침습한 病이므로 瀉하면 나올 수 있고, 이 章에서 말하는 厥氣는 스스로 本元之氣를 傷하여 陰陽이 厥逆하여 不和하게 된 것이므로 무릇 이 十五種의 꿈은 모두 不足한 病이니 마땅히 虛한 것을 補하여 陰陽을 조절하여 和平하게하면 바로 나올 수 있다.”<sup>50)</sup>라고 하였다.

###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夢見丘山煙火’가 『中藏經』에는 ‘夢丘山煙火’로 되어 있고, 『病源』에는 ‘夢見山岳煙火’로 되어 있으며, 『太平』에는 ‘夢見丘山燭火’로 되어 있는데, 煙, 燭(불뚝, 빛날 표), 燭(햇불 작)은 모두 큰 불을 의미하므로 모두 같은 뜻이다.

48) ●景岳: 胞는 渡脬也요 臚는 大腸也니 在前 則夢渡하고 在後 則夢便이라 ○張: 客於胞 則夢泄前溺하고 客於臚腸 則夢後便이라 ○傑: 胞는 這裏是指膀胱이요 臚는 是指直腸이라 ○校釋: 胞는 指膀胱之下的尿路而言이요 臚는 卽直腸이라 ○庸: 胞는 通脬니 此處指膀胱下方的貯尿器官이요 臚는 直腸이라 ○郭: 臚는 廣韻 二十四職에 臚는 肥腸이라하니라

49) 馬: 凡此十五不足者는 在腑 則不足於內하고 在臟 則不足於外라 凡有夢至時에 卽知其邪之在何臟腑니 遂用鍼以補之면 其邪可立已矣라 蓋腑夢補臟하고 臟夢補腑也라

50) 景岳: 凡此十五不足者는 當各隨其經하여 以針補之라 ○張: 凡此十五不足者는 至而補之면 立已也라 ●章: 上言客邪之病 故로 瀉之可已요 此言厥氣者는 以自傷本元之氣하여 致陰陽厥逆不和니 故로 凡此十五種夢은 皆爲不足之病이니 而當補其虛하여 調其陰陽和平하면 立已也라

‘夢臨淵’이 『中藏經』과 『千金』에는 모두 ‘夢臨深’으로 되어 있는데, ‘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문의 내용이 옳다.

‘沒居水中’이 『中藏經』에는 ‘投水中’으로 되어 있고, 『病源』에는 ‘沒于水中’으로 되어 있는데, 『中藏經』의 ‘投’는 ‘沒’의 誤植이고, 문법상으로 ‘沒于水中’이 옳다.

‘夢聚邑衝衢’가 『甲乙』에는 ‘夢聚邑行街’로 되어 있고, 『病源』에는 ‘夢游聚邑街衢’로 되어 있으며, 『脈經』, 『千金』, 『太平』에는 모두 ‘夢聚邑街衢’로 되어 있는데, ‘行街’는 ‘衝衢’의 誤植이고 ‘街’는 ‘衝’과 통용하여 쓰므로 원문의 내용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客于胞臚’이 『病源』에는 ‘客于胞’로 되어 있는데, 下旬 ‘則夢洩便’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문의 내용이 옳다.

[較註에 對한 考察]

‘客于臚則夢鬪訟自刎’에 대하여 馬는 臚는 木에 속하고 脾는 土에 속하므로 木克土하므로 肉이 손상되는 꿈을 꾸게 된다고 보았고, 景岳張傑庸은 臚이 決斷을 主管하므로 氣가 剛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景岳 등의 주장이 옳다.

‘客于項 則夢斬首’에 대하여 馬는 項이 邪氣의 損傷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景岳는 恐怖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았으며, 張은 陽氣가 項을 따라 頭로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았는데, 張의 주장이 가장 일리가 있다.

‘客于脛 則夢行走而不能前 及居深地窳苑中’의 ‘居深地窳苑中’에 대하여 張은 足은 陰이 되므로 깊은 수렁이나 숲에 빠져 있는 꿈을 꾸는 것은 地氣가 下陷했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이는 지나치게 陰陽論의으로 보는 것이니 무리가 있다. 또한 ‘窳苑’에 대하여 丹波는 苑을 誤字로 보고 해석하지 않았고, 校釋庸傑은 숲이 울창한 園林이라고 보았지만 문장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客于股肱 則夢禮節拜起’에 대하여 馬庸은 절하는 것은 股肱에서 주관하기 때문으로 보았고, 景岳張은 勞倦하여 手足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景岳 등의 주장이 포괄적이다.

‘胞臚’에 대하여 馬는 膀胱의 의미로 보았고, 景岳張傑校釋庸은 胞를 膀胱으로 臚를 大腸으로 보았는데, 景岳 등의 주장이 가장 옳다.

‘至而補之’에 대하여 馬는 邪氣가 腑에 있으면 안이

不足하고 臟에 있으면 밖이 不足하므로 腑夢에는 臟을 補하고 臟夢에는 腑를 補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二節 전체의 내용이 해당기관의 부족증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잘못되었다고 본다.

### 【直譯】

“厥逆한 邪氣가 心에 침습하면 산이나 언덕에 불이 나는 꿈을, 肺에 침습하면 날아오르거나 금속류의 괴이한 물체가 보이는 꿈을, 肝에 침습하면 山林樹木이 보이는 꿈을, 脾에 침습하면 구름이나 큰 못이 보이거나 비바람에 집이 부서지는 꿈을, 腎에 침습하면 깊은 연못에 이르거나 물에 빠지는 꿈을 꾸니다. 膀胱에 침습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꿈을, 胃에 침습하면 음식을 먹는 꿈을, 大腸에 침습하면 들판이 보이는 꿈을, 小腸에 침습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가 나타나는 꿈을, 膻에 침습하면 송사를 벌이거나 스스로 할복하는 꿈을 꾸니다. 陰器에 침습하면 성교하는 꿈을, 項部에 침습하면 목이 잘리는 꿈을, 頸部에 침습하면 걸거나 달리려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깊은 수렁이나 숲속에 있는 꿈을, 대퇴부나 팔뚝에 침습하면 예절바르게 절을 하는 꿈을, 胞臚에 침습하면 대소변을 보는 꿈을 꾸니다. 무릇 이 열다섯 가지 부족한 것은 邪氣가 이른 곳을 補하면 바로 낫습니다.”

## IV. 意 譯

黃帝께서 물으셨다. “淫邪가 널리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대답하셨다. “正邪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침습하여 정해진 부위에 있지 않고, 도리어 臟으로 넘쳐 스며들어 정해진 거처를 얻지 못하고 營衛와 함께 흐르며 魂魄과 함께 날아 오르면 그 사람이 편히 잠들 수 없고 자주 꿈을 꾸게합니다. 邪氣가 腑로 침습하면 외부가 有餘하고 내부가 부족하게 되며 邪氣가 臟에 침습하면 내부가 有餘하고 외부가 부족하게 됩니다.”

黃帝께서 물으셨다. “有餘하고 부족한 것이 꿈의 형태로 나타납니까?”

岐伯이 대답하셨다. “陰氣가 盛하면 큰물을 건너면서

두려워하는 꿈을, 陽氣가 盛하면 큰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을, 陰陽이 모두 盛하면 서로 죽이는 꿈을 꾸니다. 上部가 盛하면 날으는 꿈을, 下部가 盛하면 떨어지는 꿈을, 심하게 굶주리면 받는 꿈을, 심하게 배부르면 나눠주는 꿈을 꾸니다. 肝氣가 盛하면 怒하는 꿈을, 肺氣가 盛하면 두려워서 소리내어 울고 날아오르는 꿈을, 心氣가 盛하면 잘 웃거나 두려워하는 꿈을, 脾氣가 盛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거나 몸이 무거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꿈을, 腎氣가 盛하면 腰脊이 분리되어 이어지지 않는 꿈을 꾸니다. 이 열두가지 盛한 것은 邪氣가 이른 것을 瀉하면 바로 낫습니다.”

厥逆한 邪氣가 心에 침습하면 산이나 언덕에 불이 나는 꿈을, 肺에 침습하면 날아오르거나 금속류의 괴이한 물체가 보이는 꿈을, 肝에 침습하면 山林樹木이 보이는 꿈을, 脾에 침습하면 구름이나 큰 못이 보이거나 비바람에 집이 부서지는 꿈을, 腎에 침습하면 깊은 연못에 이르거나 물에 빠지는 꿈을 꾸니다. 膀胱에 침습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꿈을, 胃에 침습하면 음식을 먹는 꿈을, 大腸에 침습하면 들판이 보이는 꿈을, 小腸에 침습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가 나타나는 꿈을, 膻에 침습하면 송사를 벌이거나 스스로 할복하는 꿈을 꾸니다. 陰器에 침습하면 성교하는 꿈을, 項部에 침습하면 목이 잘리는 꿈을, 頸部에 침습하면 걸거나 달리려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깊은 수렁이나 숲속에 있는 꿈을, 대퇴부나 팔뚝에 침습하면 예절바르게 절을 하는 꿈을, 胞臚에 침습하면 대소변을 보는 꿈을 꾸니다. 무릇 이 열다섯 가지 부족한 것은 邪氣가 이른 곳을 補하면 바로 낫습니다.”

## V. 結 論

이상과 같이 『靈樞·淫邪發夢』篇에 대한 관련 文獻을 校勘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章에서

‘反淫于藏’이 『千金』과 『靈樞略』에는 모두 ‘及淫于藏’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위의 ‘未有定舍’句와 연결하여 볼 때 ‘及’은 ‘反’의 오석이다.

‘正邪’의 의미는 正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陰陽勞逸로 인한 外感과 聲色嗜欲으로 인한 內傷가운데 다만 身心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꿈의 발생 기전에 대하여 楊은 그 형태에 따라 徵夢, 想夢, 病夢으로 나누어 보았고, 黃은 ‘本氣의 盛虛에 따라 모두 꿈을 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2章 1節에서

‘夢大火而燔燭’은 위의 ‘夢涉大水而恐懼’와 對句를 이루고 있으므로 ‘夢蹈大火而燔燭’이 옳다.

‘夢恐懼哭泣飛揚’은 下節의 ‘客于肺 則夢飛揚’의 내용을 살펴볼 때 虛實의 차이가 있으므로 ‘夢恐懼哭泣’으로 하는 것이 옳다.

『太素』에는 凡字 앞에 ‘心氣盛 則夢善笑恐畏 脾氣盛 則夢歌樂 身體重不舉 腎氣盛 則夢腰脊兩解不屬’이 없고 ‘短蟲多則夢衆 長蟲多則夢相擊破傷’이 더 있는데, 전체의 내용이 ‘反淫于藏’에 대한 부연 설명이므로 『太素』의 것은 옳지 못하다.

‘陰氣盛, 陽氣盛, 陰陽俱盛’에서 陰氣를 營氣, 陽氣를 衛氣로 보고 陰氣盛을 營氣가 盛한 것, 陽氣盛을 衛氣가 盛한 것, 陰陽俱盛을 營衛氣가 모두 盛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上盛則夢飛 下盛則夢墮’에서 上下의 의미는 陰陽과 魂魄으로 보는 것이 옳다.

#### 2章 2節에서

‘沒居水中’은 『病源』에는 ‘沒于水中’이 문법상 옳다.

‘客于膽則夢鬪訟自劓’의 의미는 膽이 決斷을 主管하므로 氣가 剛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胞臚’의 의미는 胞를 膀胱으로 臚를 大腸으로 보는 것이 옳다.

‘至而補之’에 대하여 邪氣가 腑에 있으면 안이 不足하고 臟에 있으면 脾가 不足하므로 腑夢에는 臟을 補하고 臟夢에는 腑를 補한다는 馬의 주장은 잘못이다.

## 參 考 文 獻

1. 郭鶴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울

- 1992
2.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3.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4.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5.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6.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7. 巢元方 諸病源候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8. 孫思邈 千金要方 杏林出版社 서울 1974
  9. 楊上善 著·籙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10.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1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大一書局 台北 1979
  13. 列子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90
  1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5. 王叔和 脈經 大孚書局 臺南 1985
  16.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90
  17. 李今庸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8
  18. 李南九 懸吐·註釋 張氏類經上 法仁文化社 서울 1998
  19.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20. 張介賓 類經簡字本 成輔出版社 서울 1982
  21. 張介賓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22. 張杲 醫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4
  23.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中國 1986
  24. 程士德外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5
  25. 陳夢雷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26. 陳璧琉·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27. 프로이트 꿈의해석 서울대출판부 서울 1993
  28.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30. 華佗 華佗中藏經 自由出版社 臺北 1989
3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1976
32. 皇甫謐著·山東中醫學院校釋 鍼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33. 黃元御 靈樞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 參 考 辭 典

1. 姜憲鎮 進明中韓大辭典 進明出版社 서울 1993
2.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3. 廓靄春 黃帝內經詞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1
4. 金壽山 漢醫籍字典 醫聖堂 서울 1991
5.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94
6.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7. 商務印書館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館 香港 1987
8. 李相殷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9. 李熙昇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10. 張登本 武長春 內經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1. 鄭鳳欽 漢英英漢中醫大辭典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1994
1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文大辭典出版部 臺北 1986
13. 車柱環 外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14. 漢英醫學大詞典編纂委員會 漢英醫藥大詞典 商務印書館 香港 1988
15. 許慎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16. 洪元植 外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9